



제32대 연합뉴스 노조 출범...

"대선 앞두고 공정보도 수호에 최선"

노재현 위원장 "연합뉴스 근간 흔들고 조합원 사기 꺾으려 하면 단호히 맞설 것"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연합뉴스의 공정보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연합뉴스 노동조합 새 집행부가 출범했다.

제32대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1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노재현 신임 노조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공정보도 수호'를 내걸었다.

노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보도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국민으로부터 '과연 연합뉴스'라는 말을 들으려면 권력,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보도는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누군가 연합뉴스의 근간을 흔들고 조합원들의 사기를 꺾으려 한다면 단호하게 맞서겠다. 기사의 편향성 논란에 갇혔던 과거로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정보도를 해치려는 외압이 작용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불공정보도에 분연히 맞선 연합뉴스 노조의 2012년 파업 투쟁과 연합뉴스 경영 공백을 초래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출범 지연 사태에 항거한 제31대 집행부의 1인 시위를 언급하며 역대 집행부의 투쟁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또 "노조는 본분인 근로 조건 개선 등 조합원의 권익 수호에 공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신

임 경영진 취임 후 조직 개편이 있었고 정기인사도 마무리됐다. 조합원들은 새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 조건이 악화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고 조합원들은 주말이나 저녁에 충분히 쉬어야 할 권리가 있다"며 "그래야 일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경영진이 조직 개편을 통해 추진 중인 디지털 콘텐츠 강화 전략 등이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노조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연합뉴스를 비롯한 공영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외부 목소리가 크다"며 "노조 집행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주시하면서 공영 언론으로서 연합뉴스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연합뉴스 노조를 이끌어온 박성민 전 위원장도 공정보도 수호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공정보도는 언론 노동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노동 조건"이라며 "이 노동 조건이 훼손되면 언론 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이면서 대표적인 공영 언론사인 연합뉴스에 몸담고 있는 우리에게 공정보도는 생존권"이라며 "공정보도가 훼손되면 연합뉴스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보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합뉴스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조합은 공정보도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언론노조 집행부와 연합뉴스 경영진도 참석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제31대 집행부에 대해 "연합뉴스 사상 처음으로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평가를 쟁취했다"며 "연합뉴스 사사(社史)에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집행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제32대 집행부에 대해서는 "전임 집행부가 이뤄낸 제도 개혁을 법으로 담보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노조의 슬기로운 대처가 더해지면 또 한번의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사장으로서 경영을 함에 있어 노조원들에게 설명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경영진이 추구하고자 하는 혁신과 변화의 방향에 대해 노조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성 사장은 "장기적으로 연합뉴스 공동체가 안아야 할 미래의 이익을 위해 잠시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사



노재현
제32대 노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제32대 지부장을 맡은 노재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곳곳에서 연합뉴스를 위해 뛰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새 노조 집행부를 축하하러 와주신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님, 성기흥 연합뉴스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1988년부터 연합뉴스 노조를 위해 헌신한 선배들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공정보도를 위해 싸웠던 103일의 파업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임 31대 노조 집행부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출범의 지연으로 사실상 경영 공백 상태가 벌어지자 1인 시위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희는 그 투쟁정신을 항상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공정보도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으로부터 ‘과연 연합뉴스’라는 말을 들으려면 권력,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보도는 필수입니다. 더구나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할 것입니다. 누군가 연합뉴스의 근간을 흔들고 조합원들의 사기를 꺾으려 한다면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기사의 편향성 논란에 갇혔던 과거로 시계를 되돌릴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노

조 집행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주시하면서 공영언론으로서 연합뉴스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지난달 국회는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공영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외부 목소리가 큼니다.

노조는 본분인 근로조건 개선 등 조합원의 권익 수호에 공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신임 경영진 취임 후 조직 개편이 있었고 정기인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조합원들은 새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악화하는 것은 아닌지 살피겠습니다. 연합뉴스의 빛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고 조합원들은 주말이나 저녁에 충분히 쉬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일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조는 다가올 임단협 협상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맨몸운동을 많이

하는데 노사관계를 철봉운동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한쪽 팔로는 철봉에 몇초 동안 매달리기도 어렵지만 양팔로 철봉을 세게 잡으면 1분 이상 버티고 턱걸이도 5개, 10개를 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노조와 사측이 모두 제몫을 다해야 연합뉴스가 공영언론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는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노조는 사측을 건강하게 견제하면서 손잡을 때는 손잡고 싸울 때는 싸우겠습니다. 노조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응원해주시고 애정어린 비판과 질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2대 노조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연합뉴스 32대 노조 출범과 함께 조합원 권익 보호에 앞장설 집행부가 새롭게 꾸려졌다.

노재현 위원장과 함께 박지호 조합원(제주취재본부)과 김동욱 조합원(미디어기술국 상품개발팀)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새 사무처장에는 이영재 조합원(정책사회부)이, 정책기획실장에는 황정현 조합원(영상미디어부)이 선임됐다.

총무부장과 교육부장, 쟁의부장은 양진규 조합원(출판부), 김효정 조합원(한반도부), 안홍석 조합원(스포츠부)이 각각 맡았다.

조직부장, 조사부장, 복지부장에는 한혜원 조합원(IT의료과학부), 권영전 조합원(콘텐츠 인큐베이팅팀), 김승연 조합원(영문경제뉴스부)이 각각 선임됐다. 홍보부장과 여성부장, 지방부장은 채세롬 조합원(경제부), 오예진 조합원(영상미디어부), 박영서 조합원(강원취재본부)이 각각 맡게 됐다.



이임사

안녕하십니까. 31대 지부장 박성민입니다. 작년 4월에 이 자리를 맡았을 때는 딱 1년만 하고 나갈 줄 알았는데 6개월이나 더 하게됐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전임 위원장인 홍제성 선배가 작년 4월 했던 이임사의 한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홍 선배가 당시에 ‘지부장을 할 때는 뒤통수에 묵직한 돌멩이 하나가 항상 들어있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후련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 기분이 딱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회사 안팎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고생했다’고 격려해줍니다. 구체적으로 고생한 얘기는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근 저는 저희 31대 집행부가 해왔던 여러 사업과 투쟁 등을 되돌아보면 왜 그 일들을 그렇게 죽기살기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공정보도입니다.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지연 사태 해결을 위한 1인시위나 사장 추천절차 개선 설득작업, 진흥회가 2년 연속으로 추진하려던 콘텐츠사례연구 저지 등등 많은 일들을 하면서 결국 공정보도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정보도는 언론노동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입니다. 이 노동조건이 훼손되면 언론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이면서 대표적인 공영언론사인 연합뉴스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공정보도는 생존권입니다. 공정보도가 훼손되면 연합뉴스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공정보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합뉴스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공정보도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대 집행부에서 훌륭히 이 역할을 해내실 거고, 저희가 못한 부분까지 다 해결할 겁니다.

그럼 저는 아주 작은 아쉬움과 매우 큰 후련함을 안고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간 31대 집행부 활동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 뒷받침이 없었다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지난 1년 반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맡은 자리 성격상 버릇없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기분 상하신 분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고 봐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민
제31대 노조위원장